

총무원-봉은사 '토론회' 합의

악화일로였던 봉은사 사태가 불교 단체들의 중재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토론회를 개최하지는 불교 단체들의 제안에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가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국적인 사태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4월 1일 총무부장 영담 스님 명의로 발표한 입장서에서 "불교단체들의 봉은사건 해결을 위해 제안된 토론회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영담 스님은 입장서에서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는 대화와 토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단체들의 토론회 제안을 받아들여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3월 30일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퇴후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정웅기 사무처장, 대한불교청년회 정웅정 중앙회장 등 불교단체 대표들은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봉은사 사태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았다.

31일 오전 불교단체 대표들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봉은사 부주지 진화 스님을 잇따라 만나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봉은사도 토론회를 통한 대화와 소통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단체들의 중재가 있기까지 봉은사 사태는 총무원과 봉은사간 공

방이 멈추질 않았었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28일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007년 대선 당시 이상득 의원과 MB 대선 운동을 도왔고, 최근에는 정부의 제정시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과 충청지역 사찰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승 스님의 해명을 촉구했다.

스님은 법회에서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의 "얼을 깨는 배가 돼 불교를 깨부수고 봉은사를 깨부수겠다"는 발언 등을 비판하며, "봉은사 직영은 결국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고 부각했다고 밝혔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영국 거사가 자리에 없었다" "명진 스님을 모른다"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거짓말 한 것이 더 크다. 군대에 안 가고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거짓말까지 하니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계은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명진 스님은 해군 최악의 참사인 1974년 YTL정 침몰사고로 복무 중인 동생을 잃은 일화를 소개하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현 정권 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님은 법문이 끝날 무렵,

"인재양성 절실 승가대학 서울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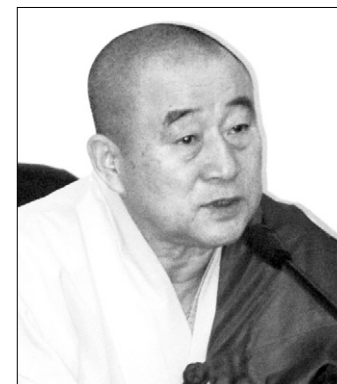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재임... 감사원장 춘광 스님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산)는 3월 30일 단양 구인사 인광당에서 제86차 정기총회 본회의를 열고 제15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재임을 결의했다.

총무원장에 재임된 정산 스님(사진)은 4월 1일 서울 관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년제 정규 승가대학 설립을 통해 수행·경전·교리·의식·포교 등 전문교육을 통해 종단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정규 승가대학 설립 △상설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전개△일심정정 관음경진 100만독 정진 △신선실천운동 전개 △지속적인 복지사업 전개 △한국 불교 국제화 등에 중점을 두고 중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교육불사는 종단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불사 중의 하나로 임기 중 반드시 추진할 사업"이라며 "승가대학 및 원각문화재단을 설립해 종단 인재양성의 토대를 갖추고, 중·고등학교도 설립



또는 인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한국 천태종 중흥호 상설 원각대조사 100주년을 맞아 천태종에서는 상월 조사 일대기 등 서적 출판, 구인사 박물관 내 유품 전시관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포교·수행 강화를 통한 종단 위상 제고도 정산 스님이 주력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관음경진 100만독 불사를 통해 수행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떨쳤던 천태종은 올해에는 4월 7일 제 주 문강사 봉행으로 시작되는 신선

실천운동대법회를 통해 수행 종단의 위상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다.

정산 스님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단 운영을 위해 인사사고 제도를 정비하고, 종단 재정 확충과 말사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의회에서는 감사원장 춘광 스님도 재임됐다.

제적의원 30명 중 2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의회스님들은 '총무원장·감사원장 추천·임명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감사원장 춘광 스님은 인준 후 인사말에서 "임명 동의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종단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종의회는 총무원을 비롯한 종단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10억 8590만 5976원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선 28-29일에는 각 부처와 산하 단체 예·결산과 중무행정을 심의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단체 제안 양측 수용 주제·방식·시기 등은 미정

명진 스님은 "개신교 장로인 대통령은 김성광 정경동 등 불교편협 발언을 일삼는 개신교 목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령의 한쪽에는 이러한 지원이 있고 자승 스님이 지금과 같은 입장이다. 한국불교의 미래로 평가받던 봉은사를 흔드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는 셈이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집권여당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스님은 "차라리 (안상수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현 정권에 대해 너무 비판하니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는

"다음 일요일에는 장삼을 입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여법한 법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며 열의 여지를 보이기도 했다.

명진 스님의 정권유착설 제기엔 총무원은 "명진 스님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석명서를 내고 반박했고, 봉은사는 총무원의 석명서에 "안상수 의원의 대화내용도 밝혀라"라며 재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29일 조계종 교구 본사주지협의회는 부산 범어사에서 회의를 열고 봉은사 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태고종 임시중앙총회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원봉)는 3월 31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02회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6억2000만원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종단간부인준 등이 의결됐다.

총회의원스님들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前 중앙서원위원장 월운 스님, 중앙호법위원장에 경남남부교구 총무원장 무호 스님, 총무원 중무조성실장(총무부장 겸직)에 청광 스님이 인준·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대전·충청지역 포교결집대회

대전과 충청권 불교계의 포교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불교 대법회를 시작으로 2010년 포교결집대회가 시작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흥)은 4월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10 대전-충청지역 포교결집대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예산 수덕사 주지 운산 스님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한글 금강경> 독송, 사회복지봉사단 발대식, 포교공로상 시상식 등이 이어

졌다.

충청지역 불자들은 대전·충청권 연합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통해 자비나눔운동의 조직적인 확산을 다짐했다. 대전·충남 불교방송국 설립을 위한 10만 불자 선포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포교원은 18일 오후 2시 제주 관음사 대불전에서 '제주 불자결집대회'를 개최한다.

포교원장 혜흥 스님은 3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2010년은 '포교역량 조직화의 해'로 선포한 만큼 올해는 포교활동이 취약한 지역부

터 결집대회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대전·충청지역 포교결집대회는 충청권 포교신도단체의 자생적 포교역량강화를 시도하는 결집대회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포교결집대회를 통해 숨은 불자들을 발굴해 불자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포교역량 조직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봉축 이후 전남·강원·인천지역 등에서 포교결집대회를 준비 중이다. 박선주 기자

생명 살리려는 고인의 뜻 영원할 것



4월 1일 故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찾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현화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1일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법명 해륜)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자승 스님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국방부 군종실장 김삼래 법사, 포교국장 남전 스님, 군법사 10여 명과 함께 빈소에서 현화를 하고 <안야심경>을 봉독하며 고인

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어 스님은 고인의 부인 김말순 씨와 아들 한상기 중위 등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다"며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뜻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故 한주호 준위는 진해시 해군교 육사령부 법당인 흥국사에서 30여

년간 신행생활을 해온 불자로 신행 활동에도 열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은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에 대해 대변인 원담 스님(기획실장) 명의로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를 바라는 기원문을 27일 발표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병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魚丈)스님 전통의식 및 상용의식 강의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대한불교조계종 어장(魚丈)스님께서는 불교 전통의식의 보존, 계승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하여 전문의식 뿐만 아니라 기초과정인 상용의식을 중심으로 매주 1회 어장스님이 집필하신 '승가의범'을 교재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강의내용 - 상용의식 (불공시식 1년 과정)
- 일 시 - 매주월요일 오후 6시~8시 첫 강의 4/12 월요일
- 장 소 - 흥원사
- 모집인원 - 00명
- 수강료 - 매학기당 80만원
- 연락처 - 02)2658-3100 (홈페이지 : www.hongwo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전통의식 보존 연구원